

## “생명의 떡”

요한복음 6:24-35

성경은 믿음을 매우 강조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보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다른 것은 몰라도 반드시 믿음만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앓은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보는 것만으로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요 6:30)**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바로 다음날 한 질문입니다.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은 기적을 행한 다음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안 믿으려고 하면 어떤 기적을 보여주어도 안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걸까요?

### 1. 믿음은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교회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폐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진정한 진리를 선포하면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 되기 원하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니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가 조심해야 할 한 가지 진리는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진리 선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흠어진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만은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7)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행 16:5)**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었을 때 결국 그 진리로 인해 오히려 수가 늘어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동기가 될 때 모든 우상이 다 산산조각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배의 부산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 2.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같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바로 믿어지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 6:27)**

이 세상에는 썩을 양식도 있고 영생하는 양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 1) 썩을 양식

예수님은 인간이 매일 먹는 음식을 썩은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간은 한끼의 양식도 거부할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그 양식이 인생의 목표가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인생의 목표를 썩은 양식에 두고 그것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 6:25-26)**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 2)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 6:33)**

생명을 주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썩는 양식이나 만나와 달리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말씀 듣고 군중들은 이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 6:35)**

생명의 떡이란 the Bread Of Life(생명의 빵) 즉 우리 정서로 말하면 ‘생명의 밥’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먹는 세끼 밥과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밥에는영적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가 밥은 필수적 음식입니다. 둘째로 밥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 장에 자신을 생명의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8 장에는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10 장에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14 장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15 장에는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인생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허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인생이 빛으로 가득차고 참 기쁨이 넘치고 생명과 부활과 진리로 샘솟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를 잘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요 6:36)**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자기속에 있는 오만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깊은 곳에 죄라는 것이 숨어있어 참 진리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요 6:47-48)**

예수님께로 나가면 생명의 떡 즉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체험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생하는 양식인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 6:49-51)**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죽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 6:53-55)**

예수님은 머리로 감상하고 연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먹고 마시면 풍성해지는 존재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성도는 녹아져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6:56-57)**

성도 여러분, 늙어서 죽는 것, 병들어 죽는 것,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실패해도 상관치 마십시오.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원이 주님과 슬픔도 걱정도 없는 곳에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생명이며 생명을 가진 성도의 특권이며 미래입니다.

헬라어로 생명을 ‘비오스’와 ‘조에’라는 두단어로 사용합니다. ‘비오스’는 육체의 목숨을 가르친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늙어 죽을 때까지의 목숨을 말합니다. ‘조에’는 영적 생명 즉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을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영생하는 것이 이것을 ‘조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 가장 행복하게 평생을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과 하나된 화목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즉 ‘조에’의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그 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인 ‘조에’를 가진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이 행복합니다.

## 나눔의 시간

1.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가장 뜨겁게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2. 나는 비오스(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조에(생명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이 두 삶의 방향이 어떻게 다를까요?
3. 조에를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결단을 한가지씩 나눠 주세요.